

1985년 2월 14일 제102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85년 2월 14일(목) 오전 10시 개의

○ 발언자:

- 사토 간쥬(佐藤觀樹)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자치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국무대신(자유민주당 총재, 중의원 의원, 방위청장관, 내각총리대신 등)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0205261X00919850214¤t=13>

○ 해제(개요 및 특징)

사토 의원은 요시다 세이지가 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조선에서 950명이 여자 정신대원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위안부로 강제연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유골 수집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함. 이에 대해 나카소네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내용이므로 앞으로 잘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함.

○ 주요 내용 번역

- ▷ 사토 위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것은 식민지 시대 36년간, 이것이 맨 먼저 떠오르는군요. (중략) 저는 식민지 시대 36년간 있었던 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1942년생이라서, 꼭 그렇다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외교는 이 시기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저 또한 일본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71세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¹⁾ 씨라는 분, 지금 시나가와구(品川区)의 가미오사키(上大崎)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는 ‘강제연행희생자 유골제사송환협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이 되신(된) 분들 가운데 일본에 남겨져 있는 유골(遺骨)을 조국에 돌려주고자 이에 관해서 조사하고 계시며, 그러한 운동을 이끌고 계신

1)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1913~2000) : 일제강점기에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지부에서 동원부장으로 일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하여 화제가 되었다. 1977년에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1983년에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1982년 9월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증언을 하였다. 발언의 허구성 등이 지적되기는 하나, 그의 증언은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분입니다. (중략)

그분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습시다만, 정말 내키는 대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을 조선반도에서 해왔더군요. 『나의 전쟁범죄』²⁾ 속에서, 그는 역시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썼더군요. 그는 책 속에서, 대체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국의 적십자사(赤十字社)가 조사한 인원수로는 72만 명의 사람들이 징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일본의公安調査庁(公安調査庁) 자료의 72만 4,700명이라는 숫자와도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그중에서 요시다 세이지 씨 자신의 고백에서는, 약 6천 명을 조선반도에서 징용으로 데려왔고, 그 가운데는 950명을 여자정신대원(女子挺身隊員)³⁾으로, 말하자면 남방으로 보내는 **위안부**로 데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부끄러운 마음에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在日本大韓民國婦人會) 중앙본부 사람들과 함께, 대체로 그런 강제노동에 동원된 댐 공사라든가 터널 공사 혹은 탄광이나 철도 공사가 있었던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력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제 막 착수했을 뿐입니다만, 조사와 공양(供養)을 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로 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일본정부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당시 일본이 수시로 일체(一體)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부리고,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정신과 육체조차 말살하며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강제노동자, 이분들의 유골이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요시다 씨와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분들은 지부(支部)를 통해 절에 그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거나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그것들을 열심히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일본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확실히 법률적으로는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條約)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금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후(戰後) 정치의 총결산을 말하기 전에 전전(戰前)에 우리 선배들이 저지른 이런 잘못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적·행정적 여러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나, 어떤 식으로든 이런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분들, 북이든 남이든 이런 분들의 유골을 모으는 일에 대해 저는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나카소네 내각총리대신** “조선반도에서 일본이 행한 일에 대해 일본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2) 吉田清治, 『私の戦争犯罪-朝鮮人強制連行』, 三一書房, 1983.

3) 조선여자근로정신대(朝鮮女子勤勞挺身隊)가 정식 명칭. ‘국가를 위해 술선수범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의 정신대란 전시체제기에 일제 당국에 의해 각계각층의 전쟁 지원조직의 의미로 붙여 사용되었다. 「여자정신근로령」이 정식으로 공포된 것은 1944년 8월이지만, 여성을 정신대로 동원한 일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반도정신대, 정신대, 여자정신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세이지 씨가 하는 일은 매우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들었으므로 잘 조사해보겠습니다.”